

KP케미칼, 워크아웃 졸업하나?

금감원, 대우정밀화학 등 10개 기업 실적호전 ... 정상화율 78%

KP케미칼 등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 10개가 실적호전 등으로 2003년 중 졸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998년 6월 외환위기에 따른 대기업의 연쇄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 이후 워크아웃을 적용한 83개 기업 중 2003년 말까지 65개가 정상화돼 정상화율은 78%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12개 기업 가운데 쌍용자동차, 동국무역, 새한, KP케미칼, 새한 미디어, 대우정밀, 미주제강, 동방생활산업, 대우일렉트로닉스, 쌍용건설 등 10개가 2003년 중 매각, 조기졸업 또는 자율추진 등으로 졸업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오리온전기와 갑을은 채권단이 실사 후 워크아웃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주제강은 2002년 말 기업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2003년 1/4분기 중 매각되고, KP케미칼은 회사분할로 상반기 중 매각될 예정이다.

또 새한미디어와 쌍용자동차는 상반기 중 매각을 다시 추진하고, 동방생활산업은 채무 재조정을 통해 하반기에 졸업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우정밀은 상반기 중 자율추진으로 전환하고 동국무역과 새한, 대우일렉트로닉스, 쌍용건설 등은 하반기중 자율추진으로 워크아웃을 졸업한다.

또 워크아웃 12개 기업의 2002년 영업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액은 전년대비 5.1%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46.5% 급증해 구조조정 효과가 두드러졌다.

쌍용자동차가 2002년 영업이익 3169억원을 올려 전년대비 107.8% 증가했으며, 동국무역은 798억원으로 166% 급증했다.

또 KP케미칼은 537억원으로 전년의 337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으며, 미주제강도 76억원 흑자로 94.9% 늘었다.

워크아웃 적용 83개 기업 중 2002년 말까지 3분의 2에 달하는 55개가 정상화된데 이어 현재 정상화가 진행 중인 10개를 포함하면 정상화율은 78%, 65개 기업에 달한다.

워크아웃 기업은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55개, 22개 기업이 집중적으로 선정됐으며 2000년에 6개가 추가됐다.

워크아웃 계속추진기업의 구조조정 실적 및 처리계획

회사명	주요 구조조정 추진 실적	2003년 처리계획
미주제강	○ 기업매각 MOU 체결(2002.12)	○ 1/4분기 매각 예정
KP케미칼	○ 회사분할(2001.12)	○ 상반기 매각 예정
새한미디어	○ 출자전환(2001.3)	○ 상반기 재매각
동방생활산업	○ 채무재조정(2002.3)	○ 하반기 졸업 예정
쌍용자동차	○ 출자전환(2001.11) 및 감자(10:1)	○ 상반기 재매각
동국무역	○ 출자전환(2002.9)	○ 하반기 자율추진
새한	○ 회장제 폐지(2002.5), 출자전환(2002.11)	○ 하반기 자율추진
대우정밀	○ 회사분할(2002.2) 및 재상장(2002.3)	○ 상반기 자율추진
대우전자	○ 회사분할(2002.10), 인력(1200명)·해외법인(26개) 정리	○ 하반기 자율추진
쌍용건설	○ 채무재조정(2002.11)	○ 하반기 자율추진

정상화된 곳은 1999년 1개, 2000년 34개, 2001년 11개, 2002년 9개 등 55개 기업이며 이 가운데 자율추진 기

업도 2001년 7개, 2002년 12개 등 19개 기업에 달했다. 나머지 16개는 워크아웃이 중단됐다.

한편, 워크아웃 기업이 정상화되기까지 평균 2년9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 정상화비용 뿐만 아니라 소요 기간 측면에서도 워크아웃제도는 법정제도인 법정관리나 화의에 비해 훨씬 우량한 것으로 평가됐다.

워크아웃 계속추진기업의 영업실적(2002)

(단위: 억원, %)

회 사 명		매 출 액			영 업 이 익		
		2001	2002	증감률	2001	2002	증감률
영 업 이 익 (10)	쌍용자동차	23,267	34,217	47.1	1,525	3,169	107.8
	동국무역	8,155	8,429	3.4	300	798	166.0
	새한	8,313	7,701	△7.4	583	652	11.8
	KP케미칼	7,652	10,753	40.5	△337	537	흑자전환
	새한미디어	3,022	3,004	△0.6	461	475	3.0
	대우정밀	4,204	4,922	17.1	153	173	13.1
	미주제강	1,100	1,166	6.0	39	76	94.9
	동방생활산업	2,068	1,883	△8.9	28	53	89.3
	대우일렉트로닉스	25,674	23,221	△9.6	871	625	△28.2
	쌍용건설	11,545	9,318	△19.3	1,336	234	△82.5
영 업 적 자 (2)	오리온전기	8,183	5,655	△30.9	△1,945	△1,830	적자축소
	갑을	4,000	2,362	△41.0	222	△220	적자전환
합 계		107,183	112,631	5.1	3,236	4,742	46.5

워크아웃 운영성과로 생산·고용면에서 충격이 완화되고 구조조정에 따른 생산성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상화된 기업의 평균 종업원수는 워크아웃 개시연도의 89명에서 졸업연도 65.6명으로 26.3% 줄었으나 전체 매출액은 37조4000억원에서 37조7000억원으로 오히려 0.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상화 기업의 1인당 매출액은 개시년도 4억2000만원에서 졸업연도 5억7000만원으로 35.7% 급증해 생산성이 향상됐다.

아울러 계속추진기업 12개의 2002년 영업이익은 모두 4742억원으로 전년의 3236억원에 비해 46.5%나 증가했다.

금융회사는 2002년 6월말까지 워크아웃기업에 신규자금으로 4조5000억원을 지원했으나 2.3배에 달하는 10조 5000억원을 회수했다.

워크아웃제도의 성공은 주채권은행의 리더십과 함께 채권금융기관의 수지개선과 국내경기 호전, 자구노력에 따른 워크아웃 기업의 영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회사 분할제도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등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제도정비 조치도 일조했으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하우 축적으로 상시 기업구조조정 체제를 정비했다는 평가도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3/ 01/ 27>